

### 무등예술관 → 전문 상업 갤러리로 리모델링

## 예술의 거리에 활력 불어 넣을까

광주시 공동 예술의 거리의 옛 무등갤러리 본관(일명 무등예술관)이 문을 닫은 지 6개월여 만에 전문 상업갤러리로 새 단장 된다. 국내외 미술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인갤러리(관장 양승찬)는 이곳을 리모델링해 내년 1월 이전하기로 했다. 수개월째 방치된 이곳이 전문 상업갤러리로 변신함에 따라 장기간 침체된 예술의 거리가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인갤러리는 19일 "무등예술관을 오는 12월 7일부터 현대식 시설

월 개관 기념전을 시작으로 지역의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중앙·해외무대 진출을 돕는 기획전을 잇따라 열 계획이다.

또 나인갤러리는 대구 갤러리쇼현, 부산 김재선갤러리, 서울 갤러리 리고도 등 4개 지역 갤러리 연합체인 '네오갤러리 네트워크'의 전시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안이다. 그동안 이들 갤러리들은 각 지역의 작가들을 공동 발굴해 4개 도시 순회 전시 등을 열었지만 현 나인갤러리 전시장에 협조해 광주에서는 제대로 된 전시를 기획하지 못했다.



광주 예술의 거리 옛 무등예술관이 전시실과 아트숍 등을 갖춘 전문 갤러리로 변신한다. 사진은 무등예술관 모습.

### ‘나인갤러리’로 간판 바꿔 달고 아트·커피숍 등 멀티공간 변신 12월 7일 착공...내년 1월 개관

을 갖춘 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내년 1월 문을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인갤러리는 1~2층 전시실(총155㎡)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예술의 거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돌출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조각가 김숙빈, 고근호씨가 조형물 작업을 맡아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갤러리 1층에는 전시장과 지역 조각가들이 만든 소품을 판매하는 아트숍, 관람객들이 쉬 수 있도록 간이 식당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2층은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해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용 전시장으로 꾸며지게 된다. 나인갤러리는 내년 1

현재 예술의 거리에는 미술품 판매와 표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화방 23곳과 전시회를 주로 여는 화랑 10곳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들 화랑의 전시 시설이 낡고, 전시장 높이도 낮아 대형 설치 작품을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다. 또 전문 화랑이 발달하지 못해 대부분 화랑 등이 기획전을 통해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기 보다는, 돈을 받고 공간을 빌려주는 장소 대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 외벽에 대형 조각품이 설치되고 아트숍과 간이 식당 등을 갖춘 나인갤러리가 내년 개관 될 경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는 등 광주의 새로운 문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찬 관장은 "인사동의 가나아트센터처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갤러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타지역 컬렉터들을 전시에 초대해 작품을 알리는 등 지역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9년 개관한 무등예술관은 지역작가들에게 무료로 대관해 큰 사랑을 받았지만 시설이 낡아 지난 5월 폐관됐다. 이후 본관을 소유하고 있던 동구청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지역의 한 중견 회화가가 이를 매입해 나인갤러리에 임대했다.

## ‘진도 씻김굿’ 故 박병천 1주기 추모 공연

21일 오후 7시 국악원 진악당

아들·손자·제자 함께 무대에



진도 씻김굿 등 '민속 음악의 보고(寶庫)' 진도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힘써온 고 박병천(1932~2007·사진) 선생을 기리는 추모 공연이 마련된다.

진도에 소재한 국립남도국악원은 21일 오후 7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고 박병천 선생 1주기 추모 공연-진도 씻김굿' 무대에 올린다.

22대를 이어온 진도 세습무 집안에서 태어난 박 선생은 무속 의례를 전수 받은 후 지난 1980년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72호 진도 씻김굿의 무악 부문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내가 추는 춤과 노래는 춤이나 노래로써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로 봐야한다"고 말해왔던 박 선생은 진도 다시래기, 남도 들노래, 강강술래, 진도 만가 등 진도 전통예술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받는 데 큰 역할을 한 '진도 예술의 산파'였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대불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 힘쓰는 등 타계하기 전까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이번 공연에는 고인의 뒤를 이어 국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과 손자, 제자 등이 함께 무대에 올라 다양한 무대를 꾸민다.

추모 공연에서는 고인이 타계하기 직전 녹음한 유작 '산자를 위한 축원 덕담'과 고인의 장남인 환영(부산대 교수) 씨와 손자인 명규(국립국악고 2년)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

대금산조, 제자 박애리(국립창극단)씨가 부르는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 선생이 직접 지도한 중국 북경무용대학 제자들의 '박병천류 북춤', 대불대 전통연희회와 제자들의 '관굿'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진도씻김굿 보존회의의 씻김굿 공연도 열린다. 문의 061-540-40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佛 약탈’ 외규장각 도서 반환 유네스코 특별회의 다시 제기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약탈해 간 문화재인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가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설립 30주년 특별회의에서 제기된다.

유네스코와 문화재청,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26-28일)에서 건국대 신병주 사학과 교수는 '조선시대 기록유산

의 유출 및 반환해법'을 통해 '외규장각 문서가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외규장각 도서는 미술품처럼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 역사 연구에 필수적인 국가 기록물이므로 한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국가기록물이란 통치행위가 담겨있는 공식문서이며 외규장

각 도서는 조선왕조 자료의 특징을 담보하고 있는 중요한 문헌이기에 단순한 감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26일 열리는 전문 회의와 27-28일 개최되는 ICPRCP 특별회의로 꾸며진다. ICPRCP 정기회의는 매년 파리에 서 열리나 특별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지난 3월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 서울대회가 두 번째다. 프랑수아 리비에르 유네스코 사무총장 보를 비롯해 30개국에서 온 정부 관계자, 학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 플루티스트 박지혜 독주회 ▶25일 광주문예회관

플루티스트 박지혜(사진) 독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루터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고풍스런 모음곡', 모슈코프스키의 '스페니쉬 탱고 작품 12', 베토벤의 '소나타', 클라크의 'The Greatest Train for solo flute' 등이 다.



광주대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로고스 실내악단, 모던 앙상블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천현주씨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

전남대 예술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독일 국립 도르트문트 음악대학에서 수학한 박씨는 현재 전남대, 광주대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로고스 실내악단, 모던 앙상블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천현주씨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

### 극장 스크린 수 광주 111·전국 1,975개

전체 85%가 멀티플렉스

우리나라 극장의 스크린수가 광주 111개를 포함해 2천개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진흥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07 전국 극장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스크린 수는 2006년의 1천880개보다 95개(5.1%) 늘어난 1천975개였다. 멀티플렉스 극장이 도입되기 전인

1997년 전국 스크린 수는 497개였지만 지난 10년 사이 4배가 된 셈이다.

한편 멀티플렉스 극장의 스크린 수는 1천680개로 전체의 85.1%였다. 이는 전년의 83.1%에 비해 2%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434개)과 경기도(453개)에 887개 스크린이 몰려 있었으며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스크린 수는 전체의 49.3%인 974개였다.

###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음사랑 합창단 '조인트 콘서트'

22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 소년소녀합창단(단장 박호진·사진)과 음사랑 합창단(지휘 임현신) 조인트 콘서트가 22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음사랑합창단은 광주 지역 음악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특히 이번 연주회에는 학원에서 플루트와 바



이올린을 배우는 어린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다양한 음악을 선사한다.

음사랑 필하모닉과 제자앙상블은 '왈츠', '베토벤 바이러스'를 선보이며, 음사랑 프루트와 앙상블과 김플루트 앙상블은

'아리랑', '피노키오' '사랑의 인사'를 선사한다.

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음사랑합창단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남촌', '님이 오시는지' 등을 들려주며 플라모이드 재즈 앙상블이 특별 출연, '리오 펑크' 등을 연주한다. 문의 062-510-93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